

KERI Brief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cb@keri.org)

한 국을 포함한 OECD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이 낮다는 그간의 비판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가계소득비중 하락, 기업소득 상승의 추세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가계소득 비중은 상승, 기업소득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에는 66.7%로 2010년 대비 2.5%p 상승했으며,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1.7%에서 2015년에는 9.3%로 2010년 대비 2.4%p 하락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 비중은 OECD국가 평균과의 격차는 1%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축소, 기업소득 비중 증가 현상은 가계부채의 증가, 자영업 부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했으며,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

었다. 2000~2015년 중 순이자소득 및 영업잉여 소득은 각각 3.9%p, 9.4%p 하락하며 가계소득 비중 축소를 주도한 반면,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을 보여주는 가계부문 피용자보수와 배당금 비중은 5.2%p, 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처분가능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 부문으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도적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부문의 경우, 임금 및 배당금 확대 등 기업소득의 이전을 강요하기 보다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자영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부문의 경우, 2000~2015년 기간중 순이자소득 비중 증가(5.8%p)가 전체 기업소득 비중 증가(6.6%p)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기업의 투자 부진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1. 연구의 목적

-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놓고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음
 - 기업이 자신의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아짐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증가, 배당확대 등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를 확대해야 함
-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추세의 전환이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주장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참고로 가계 및 기업 소득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 국민총소득(GNI) 기준과는 달리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을 기준으로 함

- 최종적인 가계 및 기업 소득의 비중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원소득분배뿐 아니라 2차 소득분배계정도 고려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 국민처분가능소득 = 본원소득분배(피용자보수+기업 및 재산소득) + 2차 소득 분배(소득 부에 대한 경상세+사회부담금+사회수혜금+기타경상이전)

<표 1> 국민계정체계내에서 기업·정부·가계소득 분류

			기업소득	정부소득	가계소득	
국민 처분 가능 소득	시장 가격 국민 소득	요소비용 국민소득	· 피용자보수			o
			기업 및 재산소득	법인(금융기관 포함)	.	.
				일반정부	.	o
				가계 및 비영리단체	.	.
	(+)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	o	.
	(+)2차소득계정(소득세,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기타경상이전 등)	법인(금융기관 포함)			o	.
		일반정부			.	o
		가계 및 비영리단체			.	.

주: 가계는 비영리단체 포함, 기업은 금융법인 포함

II. 우리나라 및 주요 OECD국가의 가계 및 기업소득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가 전환됨

- 2010년 이후 기업소득 평균증가율 큰 폭 둔화 : 21.4%('06~'10) → -0.7% ('11~'15)
- 반면, 가계소득 평균 증가율은 소폭 둔화에 그침 : 5.1%('06~'10) → 4.9% ('11~'15)

-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가계소득비중 하락, 기업소득 상승의 추세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가계소득 비중은 상승, 기업소득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

-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72.0%에서 2010년 64.2%로 하락했으나, 2015년에는 66.7%로 2010년 대비 2.5%p 상승
-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 2.7%에서 2010년 11.7%로 상승했으나, 2015년에는 9.3%로 2010년 대비 2.4%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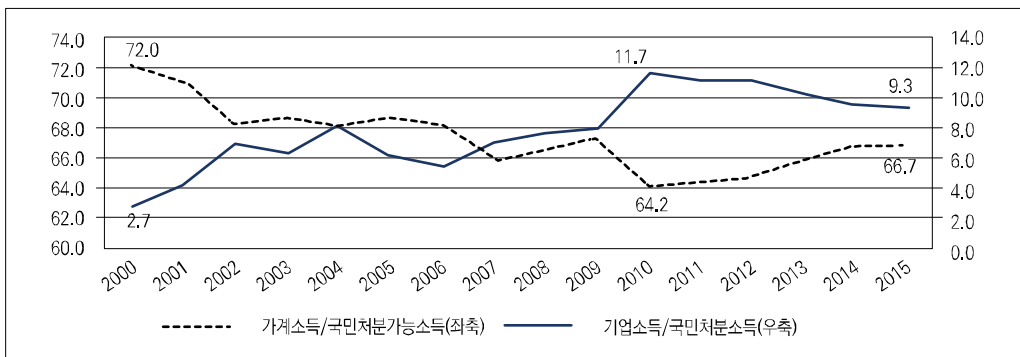
〈표 2〉 제도부문별 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연평균, %)

	'01~'05	'06~'10	'11~'15
기업소득증가율	26.2	21.4	-0.7
가계소득증가율	6.5	5.1	4.9
국민처분소득증가율	7.5	6.5	4.1

〈그림 1〉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단위: %)



주: 가계는 비영리단체 포함, 기업은 금융법인 포함

<p>□ 동기간 중 OECD 국가¹⁾의 기업소득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모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소득의 경우, 27개국 평균은 2010년 9.0%에서 2014년 9.3%로 0.3%p 상승했으나, 하락 국가 수가 16개국으로 다수를 차지 ○ 동 기간중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 감소(-2.1%p)는 27개국 중 9위에 해당 - 가계소득의 경우, 27개국 평균 2010년 69.6%에서 2014년 67.5%로 2.1%p 하락 ○ 27개국 중 총 6개국만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 증가(+2.4%p)는 상위 3번째에 해당 	<p>□ 이로 인해 한국과 OECD국가 간, 가계소득 비중과 기업소득 비중은 거의 유사한 수준에 근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소득 격차(한국-OECD) : -5.4%p(2010년) → -0.9%p(2014년) - 기업소득 격차(한국-OECD) : 2.8%p(2010년) → 0.4%p(2014년)
	<p>1) OECD 국민계정 통계(Detailed National Accounts, SNA 2008: 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annual (Edition 2016))에서 자료가 있는 27개국을 대상으로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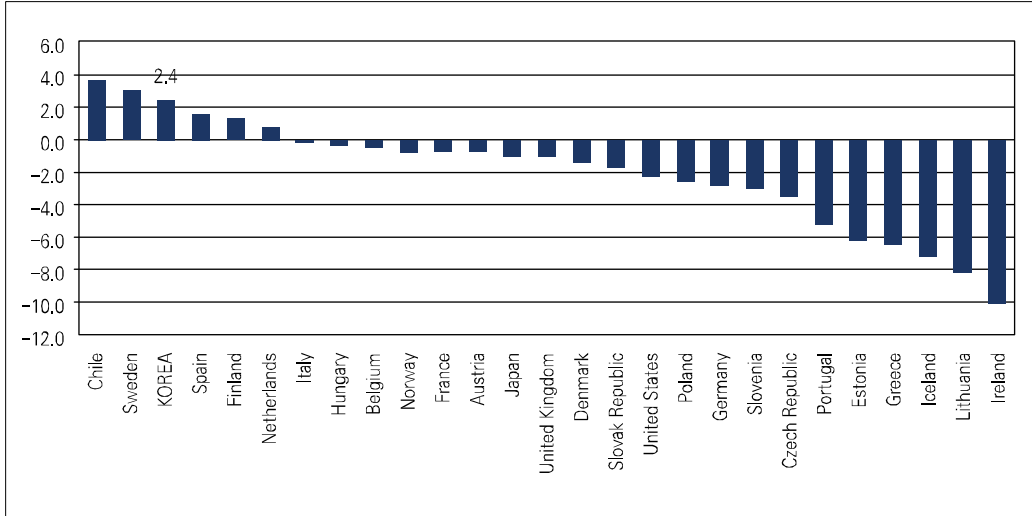
〈표 3〉 OECD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

(단위: 비중, %p)

		2010	2014
가계소득	27개국 평균(A)	69.6	67.5
	한국(B)	64.2	66.6
	차이(B-A)	-5.4	-0.9
기업소득	27개국 평균(A)	9.0	9.3
	한국(B)	11.7	9.6
	차이(B-A)	2.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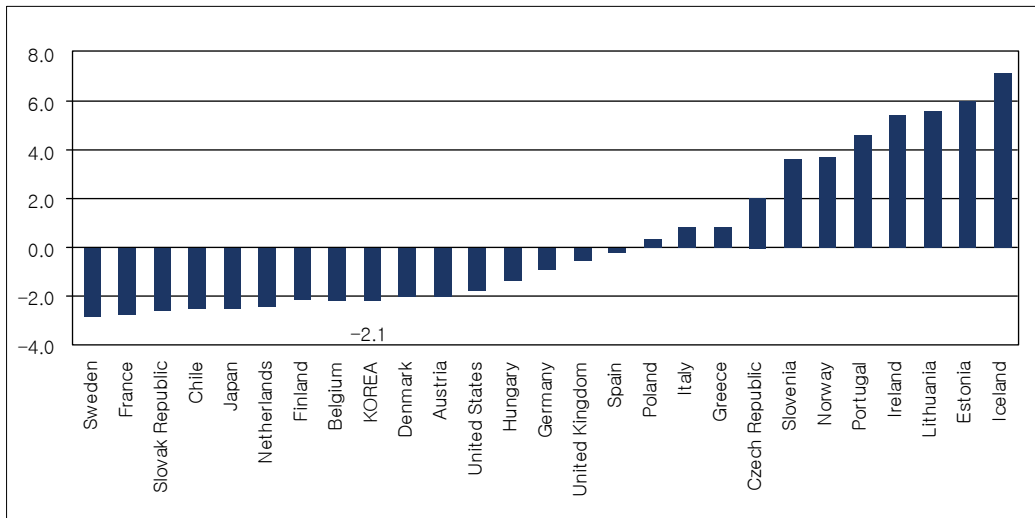
〈그림 2〉 OECD 국가별 가계소득 비중 변화(2010~2014)

(단위: %p)



〈그림 3〉 OECD 국가별 기업소득 비중 변화(2010~2014)

(단위: %p)



III. 한국의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변화의 원인

1. 2010~2015년 가계소득 비중 증가, 기업소득 비중 감소의 원인

□가계소득 비중이 상승한 데는 취업자 증가, 배당성향 증가가 주요한 기여를 한 반면, 자영업 부진 및 가계부채 증가는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

- 2011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피용자 보수가 국민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2.1%에서 2015년에는 55.3%로 3.1%p 상승

- 취업자 증가율은 2006~2010년 연평균 0.8%에서 2011~2015년중 1.7%로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
- 제조업 인건비의 대 매출액 비중도 2010년 8.5%에서 2015년 10.8%로 상승

- 우리나라 배당성향이 꾸준한 높아지면서 가계의 배당소득 비중도 동기간중 7.0%에서 8.0%로 1.0%p 상승

- 코스피 배당성향은 2010년 16.2%에서 2015년에는 22.8%로 상승

- 반면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자비용 비중은 동 기간중 0.4%에서 0.0%로 0.4%p 하락

- 2010~2015년 중 가계부채 연 평균 7.4% 증가(명목 경제성장률 연 평균 4.3%를 상회)

-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가계부문 영업잉여 비중은 동 기간중 10.9%에서 10.0%로 하락하며 자영업의 부진을 반영

□기업소득 비중의 감소는 대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영업잉여 감소, 배당성향 증가에 따른 배당금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

- 기업 영업잉여가 국민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의 영향으로 2010년 24.3%에서 2015년에는 21.9%로 2.5%p 감소

- 동기간중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7%에서 5.1%로 1.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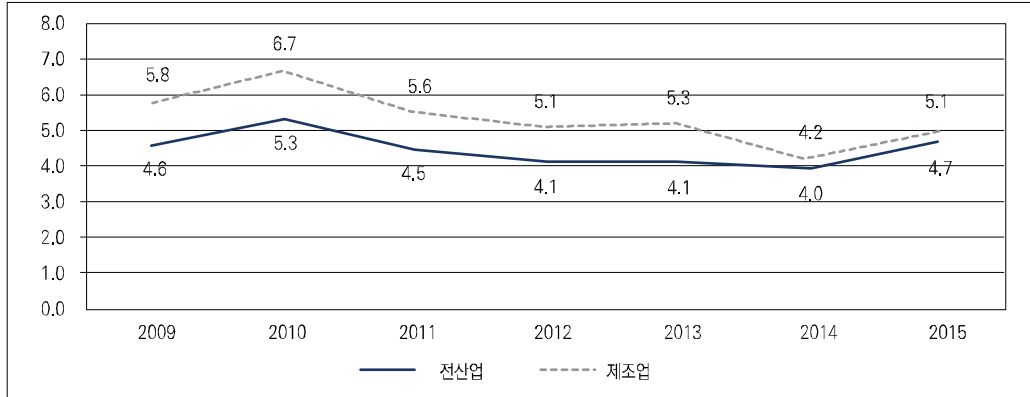
- 기업부문의 순배당소득 비중도 2010년 -7.6%에서 2015년에는 -8.1%로 0.6%p 하락

- 반면 기업부문의 순이자소득 비중은 2010년 -0.4%에서 2015년에는 0.4%로 0.7%p 상승

- 이는 동기간중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차입수요가 감소한데 기인

〈그림 4〉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 2000~2015년 가계소득 비중 감소, 기업소득 비중 증가의 원인

□ 2010~2015년 추세전환에도 불구하고 2000~2015년의 긴 기간을 살펴 보면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기업소득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72.0%에서 2015년 66.7%로 15년간 5.3%p 감소
-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 2.7%에서 2015년 9.3%로 15년간 6.6%p 증가

□ 2000~2015년중, 가계소득 비중 감소는 피용자보수 증가가 미흡해서라기 보다는 이자영업 부진 및 가계 부채 증가에 의해 주도됨

- 가계부문 영업잉여는 9.4%p 감소해 피용자 보수 5.2%p 증가에 비해 비중 변화가 약 1.8배 높았음

○ 이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외환위기 이후 자영자 소득(가계 영업잉여) 부진과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감축을 이룬 기업부문과는 달리 가계부문은 부채누적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가 진행되어 왔던 것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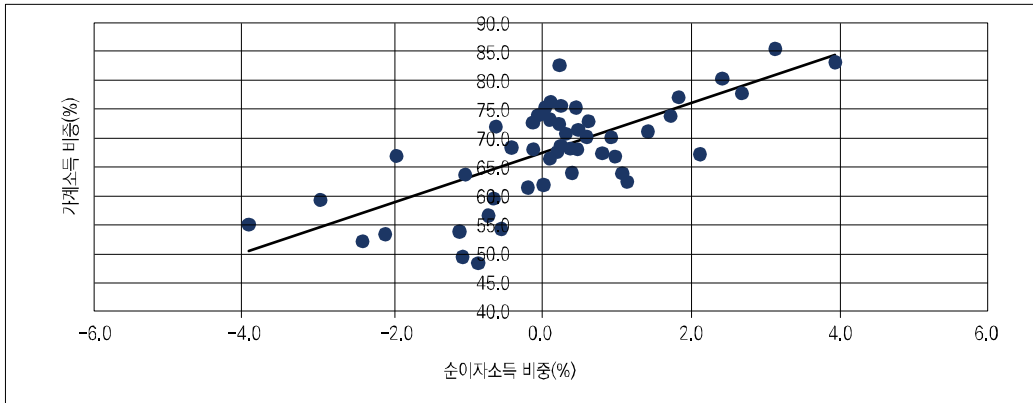
- 순배당 소득 비중은 3.2%p 증가했으나 순이자소득 비중이 3.9%p 감소하면서 재산소득 비중도 0.7%p 감소

- OECD 통계에서도 가계소득 비중은 피용자보수 보다는 영업잉여(자영업자 소득), 순이자소득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0년, 2014년 두 해의 가계소득비중은 가계 영업 잉여, 순이자소득과는 정의 관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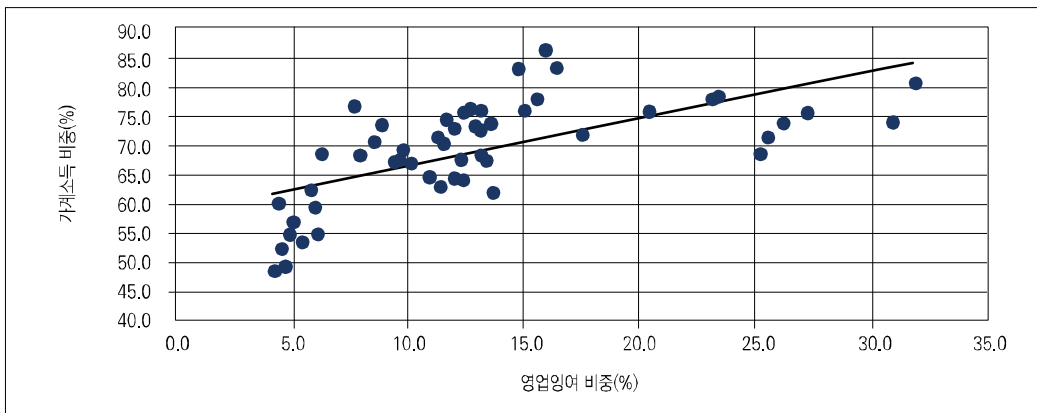
〈그림 5〉 OECD 주요국의 가계소득 비중과 순이자소득 비중의 관계

(단위: %)



〈그림 6〉 OECD 주요국의 가계소득 비중과 영업잉여 비중의 관계

(단위: %)



□ 2000~2015년중, 기업소득 비중 증가는 영업잉여보다
 다는 오히려 기업 순이자비용 감소가 주도

- 기업부문 순이자소득 비중은 5.8%p 증가로 영업잉여 3.9%p 증가보다 약 1.5배 높았음
- 순배당소득은 2.5%p 감소하며 꾸준한 배당 확대

- 또한 동기간중 증가한 영업잉여 부분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화된 법인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종업원 규모 10인 이상 법인수 증가가 2007~2010년 기간중 15.4%에서 2011~2014년 중에는 11.5%로 둔화된 것이 동기간중 기업소득 비중의 감소에 일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4〉 우리나라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의 항목별 비중*과 변화 추이

(단위: 비중, %, %p)

		2000 (A)	2005 (B)	2010 (C)	2015 (D)	'00~'05 (B-A)	'05~'10 (C-B)	'10~'15 (D-C)	'00~'15 (D-A)
가 계 소 득	피용자보수	50.0	53.5	52.1	55.2	3.5	-1.5	3.1	5.2
	영업잉여	19.4	14.7	10.9	10.0	-4.6	-3.8	-0.9	-9.4
	재산소득	8.7	6.6	7.4	8.0	-2.1	0.8	0.6	-0.7
	- 이자	3.9	0.8	0.4	0.0	-3.1	-0.4	-0.4	-3.9
	- 배당금 등	4.8	5.8	7.0	8.0	1.0	1.2	1.0	3.2
	2차 소득분배	-6.0	-6.3	-6.2	-6.5	-0.2	0.1	-0.3	-0.5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4.4	-4.3	-4.7	-5.9	0.1	-0.4	-1.2	-1.5
	가계소득 합계	72.0	68.6	64.2	66.7	-3.4	-4.4	2.5	-5.3
기 업 소 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18.0	20.1	24.3	21.9	2.1	4.3	-2.5	3.9
	재산소득	-11.1	-8.5	-7.9	-7.8	2.6	0.5	0.2	3.3
	- 이자	-5.4	-1.1	-0.4	0.4	4.3	0.7	0.7	5.8
	- 배당금 등	-5.6	-7.4	-7.6	-8.1	-1.8	-0.2	-0.6	-2.5
	2차 소득분배	-4.2	-5.5	-4.6	-4.8	-1.3	0.8	-0.2	-0.6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3.9	-4.4	-4.0	-3.9	-0.5	0.4	0.0	0.0
	기업소득 합계	2.7	6.1	11.7	9.3	3.4	5.7	-2.4	6.6

주: * 경제 전체의 국민처분가능소득에 대한 비중을 의미

IV. 시사점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의 소득 환류성이 낮다는 그간의 비판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짐

-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은 상승하고 기업소득 비중은 하락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 비중은 OECD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1% 미만으로 축소

○ 가계소득 격차(한국-OECD) : -5.4%p(2010년) → -0.9%p(2014년)

○ 기업소득 격차(한국-OECD) : 2.8%p(2010년) → 0.4%p(2014년)

-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축소, 기업소득 비중 증가 현상 원인이 가계부채의 증가, 자영업 부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했으며 기업부문이 정당한 몫 이상을 가져가서가 아니라는 점 확인

○ 2000~2015년 중 순이자소득 및 영업잉여 소득은 각각 3.9%p, 9.4%p 하락하며 가계소득 비중 축소를 주도

○ 반면에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 환류성을 보여주는 가계부문 피용자보수와 배당금 비중은 5.2%p, 3.2%p 상승

□ 따라서 국민처분소득을 단순히 가계와 기업부문으로 나눠 양부문의 소득을 배분하려는 제로섬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각 부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

- 가계부문의 경우 임금 및 배당금 확대 등 기업소득의 이전을 강요하기 보다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자영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

○ 가계부채 문제는 원리금 동시상환, 고정금리 중심, 고금리 비중 축소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자영업의 경우 전문화, 고부가가치화가 시급

- 기업부문의 경우, 2000~2015년 기간중 순이자소득 비중 증가(5.8%p)가 전체 기업소득 비중 증가(6.6%p)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기업의 투자부진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투자 활성화 노력이 시급

[참고문헌]

- 박춘식(2016), “ ‘소고’ 한국 가계소득 비교·분석”,
http://choonsik.blogspot.kr/2016/07/blog-post_80.html
- 성병무, 강만호, 김병민(2014), “가계와 기업소득간 격차확대의 원인 분석”, 조사통계월보 2014년 12월호, 한국은행
- 심혜령(2014),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소득 현황 및 국제비교”, NABO 경제동향&이슈, 2014년 7/8월호, 국회예산정책처
- OECD, Detailed National Accounts, SNA 2008: 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annual (Edition 2016)

〈부록〉

〈부표〉 우리나라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의 항목별 금액

(단위: 조 원)

	2000	2005	2010	2015	
국민처분소득	521.7	750.3	1,028.3	1,254.8	
가 계 소 득	비용자보수	261.0	401.7	535.3	692.7
	영업잉여	101.0	110.6	112.1	124.9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0.0	0.0	0.0	0.0
	재산소득	45.3	49.4	76.1	100.8
	이자	20.4	5.9	4.1	0.1
	배당금 등	24.9	43.6	72.0	100.7
	2차 소득분배	-31.4	-47.0	-63.4	-81.3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22.8	-32.1	-48.5	-73.9
	순처분가능소득(NDI)	375.9	514.8	660.1	837.2
	총처분가능소득(GDI)	396.6	544.7	701.0	889.1
기 업 소 득	비용자보수	0.0	0.0	0.0	0.0
	영업잉여	93.7	150.5	250.2	274.5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0.0	0.0	0.0	0.0
	재산소득	-57.7	-63.6	-81.7	-97.4
	이자	-28.4	-8.2	-3.7	4.7
	배당금 등	-29.3	-55.4	-77.9	-102.1
	2차 소득분배	-21.8	-41.1	-47.7	-60.3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20.5	-33.1	-40.9	-49.4
	순처분가능소득(NDI)	14.3	45.7	120.8	116.8
	총처분가능소득(GDI)	89.4	153.6	277.8	324.7